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 향후 전망

# 美 21개 업체 중 5곳만 '자율' 참여

규제기간 120일 시한부... 한국 1년이상 원해

구속력 싸고 정부 개입엔 통상분쟁 가능성

정부가 한미 쇠고기 재협상 카드를 쓰지 않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방안으로 민간 업체들의 '수출 자율규제'를 선택했으나 최종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 업체들과 규제 기간, 구속력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 때문이다

◇정부 입장=쇠고기 재협상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구체적 방식은 ▲1단계로 미국 내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자율 결의하고 ▲2단계로 국내 수입업체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며 ▲3단계로 수입·수출업체의 합의를 협정 등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도 업계와 합의, '30개월 미만' 유통 표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야 한다.

◇실효성 논란=논란의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특정 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해놓고 업자간 자율규제를 근거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검역주권을 발동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모든 쇠고기 수출품에 유통표기(라벨링)를 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자율규제 약속을 받았다면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입조건 부칙 6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부칙 6항에 따른 검역주권의 대상은 SRM이 포함된 쇠고기나 미국의 동물성 사료강화조치의 불이행 등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항이 아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과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연일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운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규제 위반이 아니고, 자율규제에 정부방점이 개입되면 국제법 위반이 돼 향후 통상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한국 수출 21개 업체 중 5개만 자율규제 선언=미국 메이저 육류업체들은 일단 쇠고기 유통 표시를 해서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기대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21개 업체 중 5개만이 참여했다.

◇규제 기간도 이견=한·미 정부 및 업계가 자율규제 기간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타이슨푸드 등 5개 메이저 업체는 '120일'의 시한부 유통 표시의사를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불안을 씻기 위해 적어도 미국의 새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시행 시점(2009년 4월)까지, 즉 1년 이상은 미국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스스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년의 시간을 번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어떤 근거로 미국에 자율규제를 요구, 30개월 이상 수출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버시바우 한국 비하 발언

### 정치권 '국민 모독' 반발 확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3일 한미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관련,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실망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한국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이날 유명한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와의 면담이 끝난 후 '미국 업계가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출을 자제하는 등 통상 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쇠고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정부가 취한 고시연기 등의 조치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어 '우리는 한국인이 과학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사실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쇠고기 파문과 겹쳐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

일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을 들어 "국민 전체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난달 버시바우 대사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데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왜 반대하느냐. 실망스럽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도무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부터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서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버시바우 대사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광정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의 한국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군정시대와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수석정책위원장이 최경환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주재국 대사는 통상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며 "본국 정부의 방침을 받기 전에 재협상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입 안되게 노력중"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4일 "한국인이 받아들일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Substantial)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문 대표와의 시내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문 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한국인이 원할 때까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그 기간이 얼마

가 되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큰 변화들이 미국 산업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라벨링(유통표시)을 통해 한국인이 안심하도록 하겠다"며 "(미국 입장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라벨링 기간을 미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연장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얹아 논의해야 할 것"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 정부측의 재협상 요구 여부와 관련, "한국 정부가 요구할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재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협상에 대해선 어느 쪽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문 대표는 전했다. /연합뉴스

## 한국, '민간 자율규제' 美와 공조 추진

### 국내 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수입 안해"

### 鄭 농식품 "美 육류업계 결의 답신 간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간 재협상이나 협정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미국의 육류수출업체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하는 민

간 자율규제 방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4일 "(미 쇠고기의 30개월 구분) 라벨링 기간은 1년보다 더 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현재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 측 반응과 관련,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체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번 쇠고기 파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 서 이날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자율적으로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런 자율규제를 토대로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과 접촉을 갖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서로 자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업자 모임인 한국수입업협의회(가칭)의 임시 회장 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이날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일시적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수입업체들도 자발적으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창규 사장은 "정부당국에 육류 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국민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율 규제 선언이 권고 사항일 뿐 개별 업체에 대한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또 축산물위생교육을 6시간 이상 받고 독립적인 영업소만 갖추면 육류수입이 가능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입업체의 난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토종한우(임소)만을 사용하는 임소로 검증 되었습니다!!  
30년 장인정신으로 토종한우만 고집합니다.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명소!!!

최고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명소!!!

최고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명소!!!

남해가든

☎ 671-8348  
673-5299